

“종로 곳곳에서 문화예술 무대”

찾아가는 공연 ‘어디나 스테이지’ 개최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찾아가는 공연 사업 「어디나 스테이지」를 통해 6월에도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어디나 스테이지」는 관내 시설을 비롯해서 한옥과 복지시설, 산책로 등 종로 곳곳의 일상 공간을 무대로 꾸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시작 이후 생활공간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진공원 종로 정원사 마을 정원 축제 6월 26일 남인사마당 전통예술도 공연

이번 6월 상반기 마지막 공연은 도심 직장인을 위한 점심시간 힐링 공연과 인사동 공간의 특성을 살린 전통예술 공연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공연은 6월 8일 오전 11시 30분 청진공원에서 열린다. 종로 정원사 마을정원 축제 「2026 가든파크닉 Week in 종로」와 연계해 진행되며, 도심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힐링 공연으로 꾸며진다. ▲청춘유수(클래식



양상블) ▲셀빛양상블(퓨전국악) ▲최달(밴드 Mijiri)이 출연해 클래식과 국악, 어쿠스틱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6월 26일 오후 5시에는 남인사마당에서 전통예술 공연이 진행된다. 인사동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두레소리(국악 합창) ▲연다악(퓨전국악)이 출연해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선사

한다.

「어디나 스테이지」는 11월까지 종로 전역에서 이어지며, 7-8월 휴식기 휴식기를 거쳐 9월부터 하반기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연 일정과 세부 내용은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누구나 가까운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대와 장소를 아우르는 생활문화 공연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실내공기질’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종로노인종합복지관, 24시간 가동

종로구가 감염병과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스마트 실내공기질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시스템은 복지관 내 주요 이용 공간의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해 요소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최첨단 기술로 24시간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밀 센서를 통해 수집된 공기질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공기살균기가 자동으로 악취·미세먼지 제거 등 실내 공기를 정화함으로써 복지관 환경을 항상 청정 상태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장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면역 취약 어르신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와관련, 복지관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하니 더욱 안심이고, 실내 환경도 한층 쾌적해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종로구 관계자도 “어르신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복지시설의 실내 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복지서비스”



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복지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과 포용으로 함께하는 청렴한 직장 만들기 행사 개최 어린이도서관, 15일부터 전 직원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어린이도서관(관장 이연미)은 오는 15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과 포용으로 함께하는 청렴한 직장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고, 청렴의 가치

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첫 번째 행사인 「꽃으로 여는 하루」는 기관장이 직원들에게 꽃과 청렴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다. 두 번째

행사인 「세대이음 공감톡톡」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며, 오는 6월-8월 중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연미 관장은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실천될 때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복궁과 종묘 일대 국가 유산 현지 적응 훈련 실시 종로소방서, 문화재 화재 대응 역량 강화... 현장대응단 10대 장비와 43명 소방대원 참여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지난달 26일 국가유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오후 2시부터 경복궁과 종묘 일대에서 현장대응단(지휘·진압·구조대), 신고 119안전센터, 종로119안전센터 등 총 10대의 장비와 43명의 소방력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특수차량 진입 가능 여부 확인 ▲소방출동 동선 점검 ▲소방시설 위치 및 활용 가능 여부 확인 ▲문화재 주변 위험요인 파악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국가유산 특성상 목조건축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우려가 크며, 문화재



보존을 고려한 제한적인 진입 활동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좁은 진입로와 차량 접근 제한 구역 등 출동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훈련에 참여한 대원들은 문화재 화재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공유하며 초기 대응능력 강화와

유관부서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은 “국가 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훈련은 제2의 실전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 안보 체험 적극 지원”

종로구재향군인회, 동성중 70여 명과 안보 체험

종로구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행 최석도)는 지난달 28일 6월 호국보훈의 달 및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안보 현장 체험 행사를 가졌다.

종로구재향군인회는 동성중학교 교사와 학생, 재향군인회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진각과 오두산 전망대에서 ‘안보 현장 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동성중학교를 출발한 참



가자들은 먼저 파주 임진각 일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립 6·25 전쟁남북자기념관,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평화누리 언덕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6·25전쟁이 남긴 비극과 상처를 되새겼다.

이어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오

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강 너머 북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참가 학생들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북한 풍경을 바라보며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딸아이의 웃음이 유난히 빛나던 그날, 그 시작엔 성균관컨벤션이 있었습니다

500년 넘게 한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성균관 명륜당의 은행나무처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해 온 웨딩홀이 있습니다.

전통과 품격, 그리고 잊지 못할 감동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에서 느껴보세요

- 프라이빗한 단독홀 & 신부대기실
- 해화역 셔틀, 넉넉한 주차
- 프리미엄 150가지 메뉴 뷔페

예식/행사 문의 02-744-0677 <http://www.skkconvention.co.kr/>



“주민 삶과 관광의 공존 추구”

종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 추진

북촌 주민 정주권 보호 및 조화 차원 급증하는 한옥체험업 생활민원도 해소

종로구가 북촌 내 급증하는 한옥체험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

북촌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체험업은 지난 2020년 47개소에서 현재 168개소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가 골목까지 확산되면서 주민 생활공간과 관광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야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북촌 가운데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한옥체험업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한옥체험업의 용도가 허용되고 있다.

종로구는 6월 중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북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앞서 종로구는 2024년 7월 북촌 한옥밀집지역의 정주 환경 보호를 위해 북촌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옐로우존·오렌지존으로 구역을 나누고, 레드존은 관광객 방문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관광과 주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일대 사계절 정원길 조성

삼청로, 효자로, 청와대로 연결 4.3km

계절별 경관 연출 도심 녹지 축 완성 봄 진달래, 여름 수국, 가을 억새와 단풍 등

종로구가 경복궁 일대를 중심으로 삼청로, 효자로, 청와대로를 연결하는 총 4.3km 구간의 가로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경복궁과 청와대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역사 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종로구는 지난 3년간 서울시와 종로구 예산을 포함해 총 3억 4,600만 원을 투입, 노후화된 화단과 식재 공간을 정비하고, 다양한 높낮이의 식물을 함께 배치해 입체적인 녹지 경관을 조성했다.

보행자 시선 높이에 맞춘 길이 화분도 설치해 거리 곳곳에서 꽃과 녹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로 구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비를 완료했다. 신무문 일대에는 한국 전통 정원 분위기의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화강석 화분과 계절 초화류를 설치했다.

중앙분리대 구간에는 산수국과 별수국 700여 주를 집중 식재해 여름철 수국 경관을 조성하고, 가을에는 수크령과 억새 등을 식재해 계절감을 더했다. 겨울에는 말채나무와 상록 사조류를 배치해 계절감 있는 경관을 이어간다.

2024년 조성을 완료한 삼청로는 자연석과 초화류를 배치해 전통 정원 분위기를 살렸다. 효자로는 기존 은행나무 중심 녹지에 진달래·이스라지·히어리 등 봄꽃 수종을 더해 경복궁 담장과 어우러지는 꽃길을 조성했다. 봄철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종로구 도시녹지과는 “이번 녹지 축 완성으로 경복궁-청와대 일대가 역사와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보행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고 싶은 ‘정원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종로구 ‘최우수 구’ 선정

서울시 환경관리평가 자치구 ‘1위’

기후에너지환경부 평가도 전국 ‘3위’

종로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최우수 구’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배출업소 점검률, 위반업소 적발률, 시료채취 검사율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가점 10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종로구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105점을 기록하며 자치구 평균 점수인 86.14점을 크게 상회, ‘최우수 구’에 선정됐다.

종로구는 전국 단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2025년 실적)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4그룹 전국 3위에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8개)를 대상으로 배출업소 관리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배출업소 수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배출사업장 점검률과 위반업소 관리 실적을 중심으로 오염도 검사, 기술지원, 교육실적 등을 종합 반영해 진행됐다. 종로구는 총점 93.68점을 기록하며 우수한 환경관리 수준을 인정 받았다.



한편 종로구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업소 정기 점검과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지원과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환경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폐기 소화기로 골목 안전”

종로구 ‘종로 든든(本) 프로젝트’ 추진 공사장 폐기 예정 소화기 100개 재활용

종로구가 건축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소화기를 화재 예방을 위해 재활용하는 ‘종로 든든(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건축공사장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화재 발생에 대비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마다 소화기 등이 다수 비치되지만, 실제 화재 발생 사례가 많지 않아 상당수가 공사 완료 이후 폐기돼 왔다.

종로구는 사용기간이 짧고 성능이 유지된 소화기를 화재 취약 지역에 재활용할 경우, 생활안전

강화와 자원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종로구는 구도심 특성상 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다.

이에 종로구는 화재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분기 유관 부서와 동주민센터로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종로1·2·3·4가동 장사동 일대 화재 취약 상가 밀집지역 ▲가회동 북촌로11길 일대 협소 골목 ▲육인동 47번지 일대 자



율주택정비사업지 등 3개 지역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다.

배부 물량은 총 100개다. 구는 관내 건축공사장 가운데 사용승인을 앞둔 효성중공업과 협업해 공사 완료 후 폐기 예정이던 소화기를 무상 기증받기로 했다.

배부에 앞서 효성중공업 관계자와 함께 소화기 상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효기간과 안전핀 결속 상태, 압력계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를 거쳐 6월 말까지 대상 지역에 배부·비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소화기 구매 비용 약 3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과 상가 밀집지역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노후 건축물과 협소 골목이 밀집한 지역의 생활 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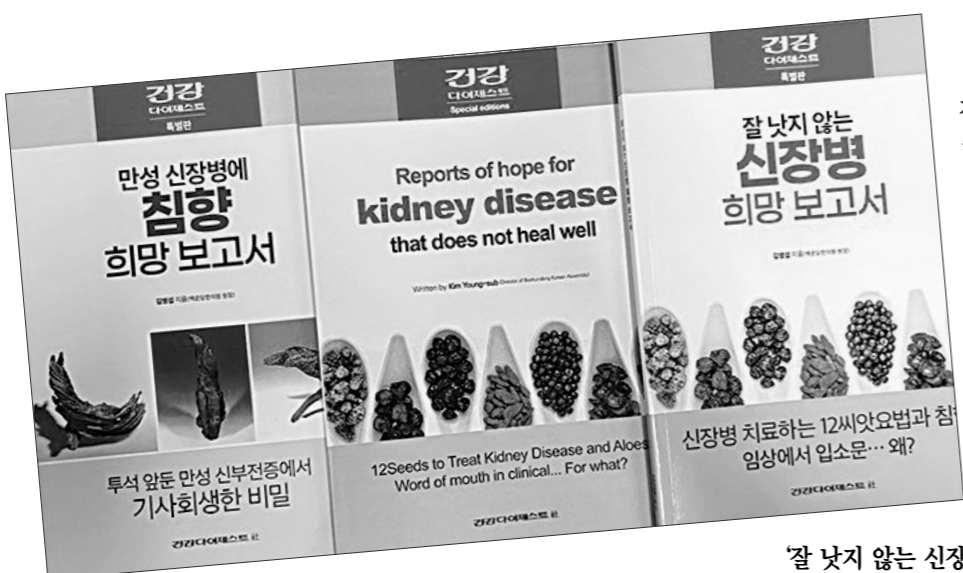
종로구 건축과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자원 선순환과 생활안전 강화를 함께 실현하는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종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포켓북 사이즈

‘만성 신장병 침향 보고서’ 발간

40여 년 침향 연구 백운당 한의원 김영섭 원장

만성 신장병 침향 보고서, 잘 낫지 않는 신장병 희망 보고서 등 신장병에 대한 설명과 예방, 치료법 소개



백운당한의원 김영섭 원장이 최근 신장병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만성 신장병에 침향 보고서 ▲잘 낫지 않는 신장병 희망보고서 ▲Reports of hope for kidney disease that does not heal well(신장병 희망보고서 영문판) 등 3권의 포켓북 사이즈의 책을 발간, 화제가 되고 있다.

‘만성 신장병에 침향 보고서’는 침향에 대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담고 있으며 40여 년 침향을 연구하고 30여 년 임상에 활용하면서 울고 웃었던 이유를 시작으로 ▲잘 낫지 않는 만성 신장병에 침향을 쓰는 이유 ▲기사회생의 명약으로 침향을 꼽는 이유 ▲오장육부를 살리는 침향의 비밀 ▲최고의 명약 침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들 ▲신장병의 명약 침향도 진품이냐 ▲최고급 침향의 4가지 조건 ▲진품 침향 AAR, 유사 침향 AML 어떻게 다르기에 ▲우후죽순 침향 제품 간간하게 고르는 팁 ▲백약의 왕 침향 금급증 일문 일답 ▲침향의 대중화 ‘득과 실’ 등에 대해 수록돼 있다.

라고 있으며, ‘Reports of hope for kidney disease that does not heal well’은 ‘잘 낫지 않는 신장병 희망 보고서’의 영문판으로, 한학으로 신장병 치료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발간했다.



... 김영섭 원장 약력 ...

- 건국대 경제학과와 경희대 한의과대학 졸업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대의원총회 부의장
 - 중국 요령성 중의연구원 객원교수
 - 국민대학교 공연예술원 겸임교수(예술보건학)
 - 필리핀 국립이히스트대학교 중신석좌교수
 - 국가원로회의 부위원장
 - 한미친선 연합회 운영위원장 등.
- (※국민훈장 목련장 · 대한민국 문화훈장 등 수상)



건강칼럼



김영섭
백운당 한의원장

회춘과 정력의 묘약
여정실복전골

▶ 재료

복어 800g(내장은 독성이 있으므로 빼다), 여정실 10g, 두부 1모, 배추 서너 잎, 당근 2개, 양파 2개(중), 파 1뿌리, 고추장 1큰술, 생강 2개

▶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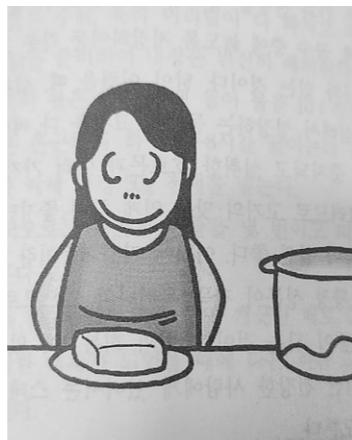
• 복어
복어는 약34종의 요리를 할 수 있는 바다 고기지만, 그 알은 살인적인 독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그 내장도 독성이 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이라는 책에 보면 복어알은 깨나 돼지도 안먹고 술개도 이를 움켜잡다가는 먹지 않고 내버린다고 했으며 《본초강목》엔 복어는 건드리면 화가 나서 뱃속에 노기가 팽창하며, 복어의 살은 독이 없으나 간과 알이 대독하니, 요리때에는 간과 알, 등심과 창자를 버리고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어는 허를 보하고 습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고 신경통, 류머티즘·경련·야뇨증 치료에 좋다.

• 여정실

나무를 말할 때는 여정목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광나무라 하는데, 그 열매를 여정자, 또는 여정실이라 한다.
이 열매는 긴 타원형을 이룬 핵과인데, 겉은 흑자색이고 안은 흰색이 있어 적갈색의 종자가 들어 있다. 맛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무독한 묘약이다.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으니 여자의 정조를 상징할 수 있어 일명 동정이라 하고 정복 혹은 여정실이라 부른다.

뽀뽀뽀해도
“밥상이 보약이다”



익정의 효과가 있는데 익정이란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 보정한다는 말이며, 신장이 보해지면 모든 장기가 스스로 편안해지고 정신이 자족하고 백병이 걸리고 신체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여정실은 예부터 자음강장제로 알려졌고, 장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으며 흰머리도 검어진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여정실은 이 복어뿐 아니라 다른 요리에도 이용해 볼 수 있다. 허약한 사람의 체력회복과 피로하기 쉬운 사람의 정력 보강은 물론, 전신의 건강에 유익

한 보탬이 될 것이다.

▶ 이렇게 만듭니다

- 1. 여정실을 3컵의 물에 넣어 약한 불로 약 한시간반 정도 달여서 한 컵 정도가 되게 졸면 배로 짜서 약죽만 담고 건더기는 버린다.
- 2. 복어는 먹기 좋을 정도의 크기로 자르고, 끓는 물에 고추장을 풀고 거기에 파·당근·생강·양파 썬 것을 야채와 함께 넣는다.
- 3. 계속 끓여서 먹게 되었을 때 여정실의 즙을 넣고 양념을 맞추어서 먹는다.

백운당 한의원 김영섭 원장 약력

- 건국대 경제학과 졸업
- 경희대 한의과 졸업
- 대한한의사협회 전국대의원총회부역
- 서울시 한의사회 대의원 총회 의장
- 중국 요령성 중의연구원 객원교수
- 국민대 공예미술원 겸임교수
-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 회장
- 동대문문화원 원장
- 한국문화원연합회 수석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저널문예

- ‘연둣빛 향연’ -



청년 조미남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 (사)한국문인협회 종로지부 이사
- 계간 문예 작가회 이사
- 한국 가곡 작가회 회원
- (사)국제 PEN 회원

싱그럽고 아름다운 연초록
내 가슴 예뻐여 놓는다

나뭇가지마다 우트는 새 생명
오묘 조묘 신비로운 바닷물결
환상적인 수채화

가슴 박차고 향홀한 연둣빛
물감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운 자연의 힘

가냘픈 잎파랑이
새순에 깃든 새 생명 에너지로
약동하는 파노라마

스치는 바람에도
풀꽃향이 피어나고
자연의 신비함을 떠 올리게 하는
연둣빛 향연 가슴 박찬다

공능 무료 개방 단계적 확대

창덕궁·창경궁·종묘 등 10월부터
공능유적본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차원

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는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공능 무료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공능유적본부는 기존의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되기 전인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공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지난 5월 27일부터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개방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각 공능유적기관의 관람 여건과 현장 수용 능력, 근무체계 정비 등 인력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덕수궁은 오는 8월부터, 창덕궁·창경궁·종묘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다만, 경복궁은 최근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혼잡과 관람객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확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능유적본부는 무료관람 확대에 따른 관람객 증가에 대비하여 관람로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혼잡 대응체계와 관람 안내 체계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 또한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매표·안내·홍보체계를 보완하고, 관람객 대상 사전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능유적본부는 국민 누구나 보다 편안하게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종로는 대한민국 1번지”
주간신문 종로저널, (주)종로문화사
◆ 등록번호 : 서울다02432
◆ 대표이사 : 이병기
◆ 인쇄인 : 김병식
◆ 발행소 :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5길 7 103동 311호
◆ 발행일자 : 2026년 6월 8일(월) <제1006호>
◆ 등록일자 : 1992년 9월 2일
◆ 발행·편집인 : 이병기
◆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 02)723-5597, 736-5598, 월 6,000원
◆ 메일주소 : leesu5597@hanmail.net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여름철 맞아 공원 물놀이장 개장
연지물놀이터,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여름철을 맞아 공원 물놀이장 4개소를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시설은 연지물놀이터와 송인공원·산마루물놀이터·상상골목물놀이터 등 임시물놀이장 3개소를 포함한 총 4개소다. 연지물놀이터는 6월 6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며 6월에는 주말에만 개장한다. 송인공원·산마루물놀이터·상상골목물놀이터 등 임시물놀이장 3개소는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주말에만 운영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한다. 모든 시설은 매주 월요일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7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구는 지난해 이용 현황과 방학 일정을 반영해 임시물놀이장 운영 시기를 조정했다.
물놀이장마다 슬라이드, 워터터널, 에어플랑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연지물놀이터에



는 보호자와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했다.
종로구는 어린이 이용 시설인 만큼 위생과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했다. 개장 전 실시한 사전 수질검사에서도 전 시설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운영 기간에도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주 1회 이

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업체 위탁 운영을 통해 현장마다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종로구 스마트 플랫폼 ‘종로Pick’으로 운영 시간대별 혼잡도와 이용 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복악팔각정
일부 시설 미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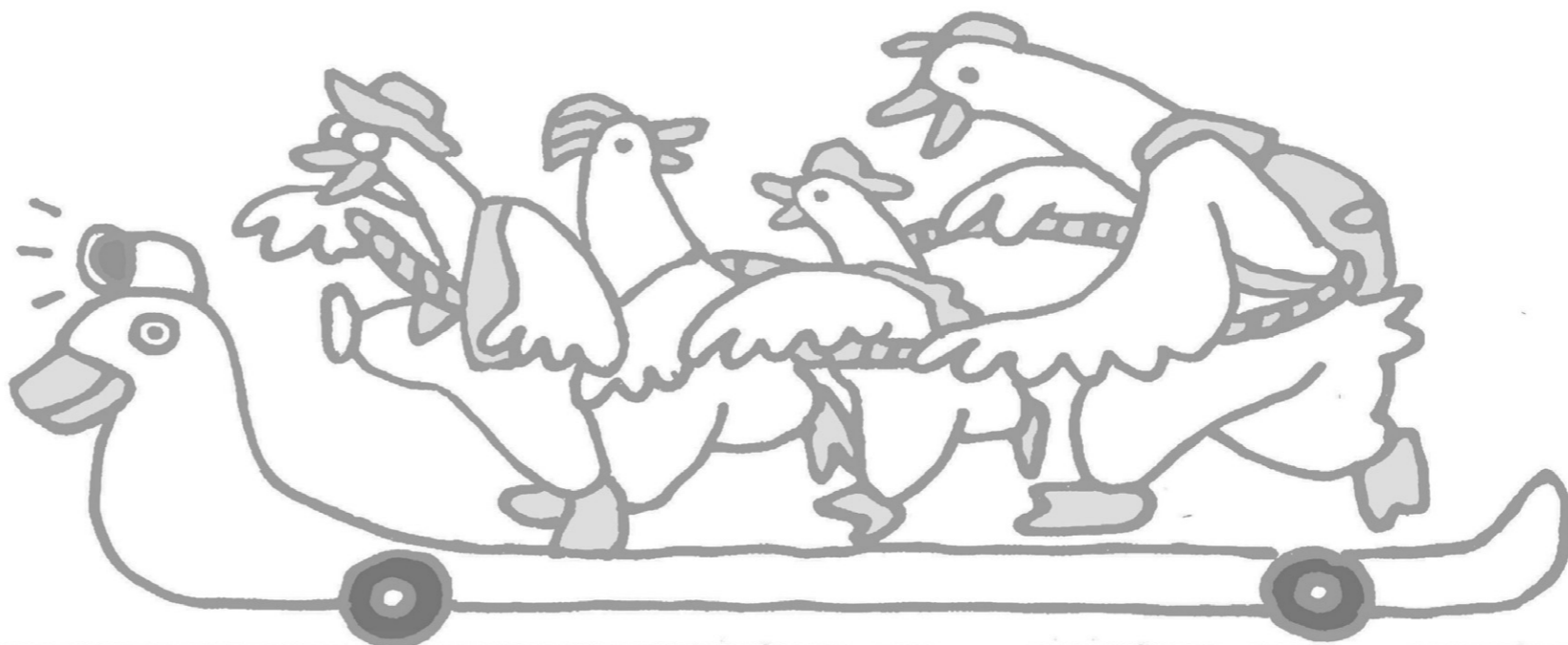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영자)은 복악팔각정 시설 새 단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8일부터 일부 시설을 임시 미운영한다.
이번 새 단장 공사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단은 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이용 편의성을 향상 시키면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공용화장실과 야외정원은 정상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복악팔각정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공사 기간 중에도 일부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구독문의 723-5597

종로 버스교통비 출퇴근과 일상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버스타고종로이리



· 신청 : 동 주민센터 및 교통비 홈페이지(tbokji.tmoney.co.kr) · 대상 : 종로구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매일 한 걸음 지구와 함께 걷는다”

2026 중부 생태 페스타 그린워크 개최

중부교육지원청, 초·중·고 학생 대상
[참여마당], [다짐마당], [탐사마당] 등 구성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지난 5월 27일,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및 청계천 인근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전환교육 실천마당 '2026 중부 생태 페스타 그린워크(Green Walk)'를 개최했다.

'2026 중부 생태 페스타 그린워크(Green Walk)'는 지역 생태 탐방과 플로깅을 통해 도심의 생명력을 직접 체험하고, 그 걸음이 365일 멈추지 않는 기후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기획했다. '매일 한 걸음, 지구와 함께 걷는다'는 부제 아래, 학생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참여마당] 생태전환 실천행동 체험존, [다짐마당] 기후행동 365+ 발대식, [탐사마당] 도심 속 생태탐사 및 플로깅의 3개 마당으로 구성되며, 관내 초·중·고등학생 기후행동 365+ 참여자 및 기후행동 실천 의지를 가진 학생은 누구나 참여하게 했다.

[참여마당] 생태전환 실천행동 체험존은 당일 14시부터 18시까지 시립서울청소년센터 4~5층에서 운영, 기후행동존, 생물다양성

존, 자원순환존, 함께실천존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기후 위기 방탈출 체험, 페이퍼아트로 푸른 바다 꾸미기, 넷제로 게임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서약 등 10개 협력 기관이 참여하여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다짐마당] 기후행동 365+ 발대식은 같은 날 15시부터 16시까지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놀샘길(3층)에서 운영되어 교사·학생 기후행동 365+ 대상 위촉장 수여, 학생 대표의 실천 선언문 낭독 및 기후행동 실천 챌린지 미션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탐사마당] 도심 속 생태탐사 및 플로깅은 16시부터 18시까지 청계천 인근에서 총 60명(10명×6그룹)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전문 생태 해설사

와 함께 역사·생태 탐사 코스, 도시 생태 집중 탐사 두 가지 코스로 체계적인 일대를 탐방하면서 도심 한복판에 숨 쉬고 있는 자연 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플로깅을 통해 기후 실천의 의미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번 '2026 중부 생태 페스타 그린워크(Green Walk)'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6월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삶 속에서 기후행동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종로구환경교육센터, 중구환경교육센터, 서울환경교육네트워킹(SEEN)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한다.



이 병 기(정치학박사)

지난 6.3 지방선거 운동이 각 정당과 후보자별로 한창일 때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소설미더어 글이 논란이 됐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이 대통령의 이 글이 단순한 선거 독려인가 아니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운동인가를 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크게 설전을 벌였다.

사실 이 말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말이지만, 정확히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플라톤의 형 글라우콘의 질문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답변을 한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정작 통치를 맡게 될 때는 그런 벌을 두려워해서 맡는 것으로 보이네”

선거는 끝났고,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지마 투표'가 지방선거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청장 선거의 사전투표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크게 쏠린 것도 무슨 조화스럽지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자가 유리한 서부지역 시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것은 대통령의 선거 독려 또는 지지층 결집을 노린 그 한마디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차치하고, 이번 종로구 의원 선거도 참으로 무색하다. 2006년도 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면서 후보자 정당공천이 이뤄졌는데, 선거구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복수 또는 다수의 후보를 공천하면서 기후 '가 번' 또는 '나 번' 등으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의원 공천 기후 배정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거의 확실적으로 기후 '가 번'이 우세한 승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기후 '가 번' 공천자 위주로 당선이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민이 기후 '가 번'을 무조건 찍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인품이나 경력 그리고 공약이나 능력 등은 필요가 없다. 후보자의 면면은 거의 무시되면서 무조건 '가 번'에게 물표를 준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후 '나 번'을 받으면 아예 후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연출된다. 기후 '가 번' 외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후보자들이 알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조리한 선거 제도가 왜 유지되는지 모르겠다. 명분은 정당공천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책임하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태세 강화

종로소방서,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대비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 비상 근무 체계도 유지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종로소방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풍수해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상황실 운영체계를 강화한다.

풍수해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위치도와 위험지역 현황도 함께 공유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로소방서는 풍수해 재난 발생 시 침수·고립 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구조대원과 생활안전대원을 중심으로 유형별 대응훈련을 지속 실시한다.

훈련은 저지대 침수사고,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고립사고 대응, 배수장비 활용, 침수지역 인명구조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중심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심 하천 인명구조 장비점검, 한강 수상시설 합동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순찰 등도 추진해 풍수해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도 대규모 침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로소방서는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실시간 대응훈련을 통해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중부교육지원청, 소재 확인 완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도규)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예비 소집에 불참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했던 아동 전원의 소재확인을 완료했다.

중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예비 소집 불참 아동 중 소재 미확인 아동 2026년 1월 13일 기준 9명, 2026년 3월 5일 기준 2명이었으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2026

년 5월 8일 기준 전원 소재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 소집 이후 교육지원청은 아동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학교, 동주민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대상 아동 전원의 소재를 확인했다.

특히 소재 확인 과정에서 소재

확인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1명)와 용산경찰서(1명)에 각각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아동들이 해의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받았다. 이처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

장은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은 아동의 안전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독문의 723-5597

종로 화제 맛집

풍농 해물 칼국수



대표 박종식

인사드립니다

30년 전통의 풍농원에 박종식 대표(종로구 5선 의원)가 지난 4일 “풍농해물칼국수”집을 겸업했습니다.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속에 신선한 해물칼국수가 고객의 입맛을 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풍농원에 주문 · 칼국수 예약

- 대표 : 02-745-0120 (010-8948-0850)
- 김흥순 : 011-9016-4561